

구례군의 사례를 통하여 본 농촌마을만들기의 방향

서 정 호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인문한국연구교수

A Study on Direction for Rural Community Building through the Case of Gurye-County

Seo, Chung Ho

Dept. of Jirisan Regio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Suncheon University

ABSTRACT : Community building has been carried out from around the year 2000 by various statutes and government policie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of the future for rural community building as surveyed cases of completed four villages in Gurye-county. In order to achieve this study's objectives,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and interviewed 75 person's residents in cases villagers. The target villages are Sangsa, Omi, Chamsaimigol and Artists village. As survey results, four villages utilized local resources, most of villages were focused perform hardware. On the other hand, Chamsaimigol was parallel software. In addition, communities didn't form and not agree with concept of community building as culture, education, welfare, etc., also didn't creation the case of village income. but active village as base development. Therefor, proposed the point to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base development and generating of income as directions for future rural community building. These dire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community building and the goal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ultimately through community building.

Key words : Base Development, Community Building, Gurye-County, Income Generating

1.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농촌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함께 농어촌마을에는 공가(空家) 또는 폐가(廢家)가 늘어났다. 그 후 197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과 마을안길 가꾸기 등 하향식 마을만들기가 진행됨으로써 농어촌마을주민들의 정주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편리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마을만들기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인의 귀농 유인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지방화시대 이후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만들기의 역사가 짧게는 7년(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 길게는 20년 이상(정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 경과한 만큼 그간의 마을만들기 과정과 결과들을 평가하여 그 성과를 계승하되 잘못 시행된 마을만들기의 개선점의 발굴과 함께 그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등 선행연구들은 마을만들기를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대상마을의 실체와 활성화 방안에 치우쳐져 있을 뿐 아니라 양적·기술적 접근이었다. 이 연구는 여러 형태로 완료된 마을만들기 사례의 전과 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이다.

이에, 전라남도 구례군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하여 향후의 농촌마을만들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례군을 사례지로 선정한 것은 중앙정부 지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만들기와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Corresponding : Seo, Chung-Ho
Tel : 061-780-5045
E-mail : schoss@suncheon.ac.kr

조성사업 그리고 군의 독자적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시행된 곳으로서 본 연구자의 현장조사의 편의성에 기인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자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문헌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구례군이 시행한 마을만들기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구례군의 마을만들기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관한 현장조사는 4개 대상마을의 입지와 특성 등의 조사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마을만들기 완료 후의 신규입주자, 기존 주민과 마을대표 및 인근마을 주민 등 75명으로부터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성과 및 장·단점, 문제점 등에 관하여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 및 그 결과의 통계분석에 의하지 않고 면담형식을 취한 이유는 각 마을마다 마을의 특성 및 마을만들기 과정과 사업내용, 규모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어서 가설 설정, 설문의 정형화 및 분석의 계량화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면담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최소한 과반 수 이상 응답한 내용을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 성과 및 장·단점, 문제점 결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등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구례군의 마을만들기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이론 및 사례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농촌의 마을만들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결론으로 향후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방향으로 교육·문화·복지 지향과 거점개발 그리고 소득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을만들기의 개념

조영재 등(2011)은 마을을 “사전적 의미로 ①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②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등 두 가지를 뜻한다고 하면서 물리적인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사람들’, 또는 ‘마을공동체’를 포함하며, 지역(area 또는 region)이라는 물리적인 범주와 다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커뮤니티(communitiy)의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최봉익(2012)은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기초단위로서 생활공동

체, 호혜적 관계의 공동체, 사회자본의 산실로서의 지역공동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마을이란 비교적 크지 않은 공동체 단위에서 주민 상호간에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리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만들어가는 관계이다.

한편,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탐구가 많지 않고 합의된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조영재 등, 2011)이지만, 마을이 공동체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역시 물리적인 범주로서의 공간 뿐 아니라 기존의 상황을 조금씩 좋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영어로 ‘Community Building’이라 표현하며(김선직, 2009), Hymann(2002)는 “마을만들기(Community Building)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관계망구축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자본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관계망 속에 배태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건축학회(日本建築學會, 2004)는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잇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상의 마을만들기의 개념들은 카와가미 미츠히코(川上光彦, 1994)가 정의한 “마을만들기란 각각의 지역이나 도시에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환경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각종 노력과 운동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틀의 형성과 다양한 물적, 사회적 환경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 및 이들을 유지, 활용해 가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2. 마을만들기의 역사

마을만들기는 근대 도시계획의 한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잉태된 것으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선직, 2009).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선 1958년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에서 비롯되며(정기환, 2002), 동 사업은 주민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자조협동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다(문지환, 2012). 이 사업은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과 전략 구상에 중요한 모델역할로 작용하였으나 소규모의 예산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이었다. 뒤 이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1976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전국의 20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상하수도

설치,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등 생활편익기반시설을 현지개발방식으로 정비한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을 띤다. 1981년부터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987년부터의 도서종합개발사업, 1988년부터의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1989년의 농어촌종합발전대책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행 그리고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1990년), 오지종합개발사업(1990), 문화마을조성사업(1991년) 등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경쟁적이라 할 만큼 그 종류가 많아졌으며, 외형적으로는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구하였다. 2000년부터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2001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년)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우수생태마을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독창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 진안군의 ‘오피마을가꾸기사업’(구자인 등, 2011)과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최수명·송태갑, 2010) 등이 그 예이다.

3. 마을만들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그 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하면 주민참여 미흡, 하양식 사업시행, 하드웨어 위주, 지역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되어왔다. 서정호(2006)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하양식 사업추진, 이해대립에 의한 갈등, 인력부족, 소득증대효과 미흡 등의 장애요인”이 발생함을 지적하였으며, 문지환(2012)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다기화”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마을만들기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농촌지역개발은 공동체와 사람, 교육, 복지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Simpson et al, 2003), 이해진(2009)은 농촌지역개발의 소득부분은 지역역량강화나 공동체 활성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가 하드웨어에 치중한 결과이다. 정기석(2012)은 “이른바 ‘마을만들기’로 불리는 마을공동체사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1천여 곳이 넘는 마을마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명백한 증거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교육, 문화, 복지, 생태 등의 가치도 골고루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마을만들기에서 공간적 범위를 읍·면 단위로 넓히는 문제는 추용욱(2010)이 ‘읍·면 단위 마을만들기’에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성주인(2012)은 “중심지는 배후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장소이자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방식의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주인(2012)은 또한 농어촌의 환경·경관·전통의 보전과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소은주(2011)가 제시한 마을만들기에서 지역자원 활용과도 같은 맥락이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태마을의 계획요소(우혜미 등, 2012)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전의 농어촌지역의 마을만들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과소화마을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마을 중심, 교육, 문화, 복지, 생태, 환경, 지역자원 활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을만들기의 읍·면 소재지로의 광역화, 지역자원 활용, 생태마을만들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행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민참여 또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는 이미 그 필요성과 방안들이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주체 육성에 관하여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는 마을만들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이른바 ‘마을살리기’이다.

III. 구례군의 마을만들기 사례

1. 구례군의 일반 현황과 특성

전라남도 구례군의 행정적 일반 현황은 Table 1과 같이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1읍, 7면의 작은 군이다. 구례군의 면적은 443.20km²로 임야가 342.53km²로 77.3% 차지함으로써 전형적인 산촌으로 논밭 등 경지는 62.4km²로 14.1%에 불과하다. 구례군은 지리적으로 지리산 남서 사면에 소재하며, 북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 동으로는 곡성군, 동남으로는 순천시, 남으로는 광양시, 서로는 경남 하동군과 접하여 전라남도의 최동북단에 위치한다(Figure 1 참조).

이러한 지형적 입지로 구례군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바람이 불지 않아 농림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만 임야의 50% 이상이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지

Table 1 구례군의 일반 현황

2012년 12월 현재, 단위 : 명, 호, 개, km²

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외국인 수(명)	가구 수 (호)	면적 (km ²)	행정구역(1읍, 7면)			
계	남	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27,282	13,234	14,048	7,784	205	12,067	443.20	69	152	168	458

출처 : 구례군, 2012(www.gurye.go.kr/kr)



Figure 1 구례군의 지리적 위치 및 조사대상 마을.

정되어 있어 농림업 외에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구례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사성암 등 유명한 사찰과 섬진강, 산수유나무 등 관광객 유인 자원이 풍부하며, 근래에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지리산둘레길 구례구간이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례군에는 야생화압화체험, 잠자리생태체험, 섬진강어류생태체험, 반달가슴곰생태체험 등 생태체험과 동편제 관소리체험, 우리밀체험 등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농협중앙회 전남연수원, 전남학생수련관, 순천대학교 교직원수련원, 지리산온천 등 교육과 휴양 시설들이 있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2. 구례군의 마을만들기 사례

가. 개관

2000년 이후의 구례군의 현대적 마을만들기 사례는 크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중앙정부지침에 의한 사업과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행복마을가꾸기사업, 구례군과 예술인들의 협의로 조성한 예술인마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Table 2는 2012년 말 현재 구례군의 완료된 마을만들기 현황이다. 이 외에도 민간이 토지를 분양하여 조성한 전원마을 등이 있다.

Table 2에서 섬진강다무락마을과 산수유마을은 각각 섬진강·대나무·황토, 산수유 등을 활용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며, 지리산참새미골은 다목적 광장, 황토한옥 펜션,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광의면지편찬위원회, 2011). 상사마을과 오미마을은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행한 마을이며, 예술인마을은 수도권의 화가

Table 2 2000년 이후 구례군의 주요 마을만들기 현황

마을(권역)명	위치	사업명	비고
섬진강다무락마을	구례읍 계산리 하유·중유·상유	농촌전통테마마을	중앙정부 지침
상위(산수유)마을	산동면 위안리 상위마을	산촌생태마을	
지리산참새미골 (방광권역)	광의면 방광리 일원 6개 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상사마을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행복마을조성사업	중앙정부+전남도
오미마을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행복마을조성사업	
예술인마을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	화가마을조성사업	구례군 시행

출처 : 연구자 조사

들이 구례군의 일부 기반시설 지원으로 조성한 마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마을, 오미마을, 예술인마을 그리고 지리산참새미골 등 4개 마을(권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Figure 1 참조). 왜냐하면 섬진강다무락마을과 산수유마을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촌관광체험마을로 일반적인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지리산권의 생태마을의 시행, 운영, 성과 등에 관하여는 서정호(2006, 2008, 2010, 2011) 등에 의하여 이미 상당히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나. 연구대상 사례마을의 현황

1) 상사마을

구례군 마산면 상사마을은 2008년에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16동의 한옥을 신축하였다. 행복마을은 전라남도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한옥시범마을 건축비 보조금 2,000만원과 용자금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최수명·송태갑, 2010). 해당 시·군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을 보조함으로써 지원금은 총 7,000만원 내외이다. 상사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도 지정되어 동 사업을 완료하였다.

상사마을의 가구 수는 98호에 인구는 226명이다(구례군, 2012). 2008년의 78호, 174명에 비하여 3년 동안에 각각 20호, 52명이 증가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는 드물게 인구가 늘어가는 마을이다.

또한 상사마을은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알려져 왔으며, 6대를 이어오고 있는 고택 쌍산재(雙山齋)와 당물샘이 소재할 뿐 아니라 한옥이 유지되어 온 마을이다. 마을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사도리 석불좌상과 효자 오형진(吳馨眞)의 정려, 효자 이교문(李教紋)의 비, 영모재(永慕齋), 옥산재(玉山齋) 등 문화유적과 야생 녹차밭 등이 있는 마을이다.

2) 오미마을

구례군 토지면 오미마을 역시 행복마을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행한 한옥마을이다. 행복마을사업으로 24동의 한옥이 신축되어 가구 수는 43호, 인구는 95명(구례군, 2012)으로, 2008년의 34호, 86명에 비하여 가구 수는 9호, 인구는 9명이 증가하였다.

오미마을은 고택 운조루(雲鳥樓)와 곡전재(穀田齋)가 소재하여 예로부터 한옥의 풍미와 풍수설 금환락지(金環落地)의 길지로 알려진 마을이다. 운조루(중요민속자료 제8호)는 1776년(영조 52) 유이주(柳爾胄)가 낙안군수로 있을 때 건축한 99칸의 귀족 주택으로 현재 73칸이 남아

있으며,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하는 뒤주에 쌀을 담아 두고 흉년에 굶주린 주민들을 구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곡전재(구례군 향토문화유산 2003-9호)는 1929년에 조선 후기 전통 목조 건축물로 부농의 민가형식으로 건축한 6채 53칸의 한옥이었다. 일부 훼손으로 인한 멸실과 증축한 상태로 현재 5채 51칸과 연못이 들어서 있는 금환락지형으로 건물의 규모나 구조가 당시의 귀족 주택의 모습이다.

오미마을은 도농교류를 위한 독특한 펀드를 개발·운영하는 곳으로, 농산물 생산자가 도시의 투자자들로부터 작물재배와 가공에 소요되는 일정한 비용을 먼저 받고 투자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보내주는 방식이다(지리산닷컴, 2012).

3) 지리산참새미골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참새미골'은 방광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곳이다. 방광리 방광마을을 중심으로 하되, 방광리 용전마을과 인근의 수월리 월곡마을과 수한마을 그리고 연파리 연파마을과 공북마을 등 총 6개의 자연마을이 사업대상마을로 이 중 연파리는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마을이다.

2004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승인,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78억 5,500만원(자부담 10억 4,400만원 포함)을 투자하여 다목적 광장, 황토한옥펜션, 체험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그 외 면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다. 한옥펜션과 수영장은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마을을 찾는 피서객의 물놀이와 숙박을 위한 시설이며, 또한 게이트볼장은 면소재지와 그 인근의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지 중심의 거점사업이다. 총사업비의 28%에 해당하는 22억 원이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에 지원됨으로써 가공식품의 생산증대, 주민참여 확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게 된다.

4) 예술인마을(화가마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에 소재한 예술인마을은 당초 수도권권을 비롯한 외지에서 활동하던 화가 31명이 이주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총 85,950㎡의 부지 중 33,320㎡의 대지에 구례군에서는 진입로 공사,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시설의 지하화 등 단지 기반조성에 2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주자들은 용지 구입 및 거주지 및 작업실 건립비용을 부담하였다. 2011년 7월 완공된 이 마을은 화가 외에도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입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가마을을 예술인마을로 칭

하게 되었다.

온당리 당동마을은 2008년의 23가구에서 52명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2011년 말 현재 27호, 52명의 인구가 거주함으로써 예술인마을의 주택소유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이 마을 앞 저수지 옆에는 조선 초부터 500년 이상 지리산산신제를 지냈던 남악사(南嶽祠) 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남악사는 1969년에 화엄사 입구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분석결과

이상 구례군에서 완료된 4개 마을(권역)의 마을만들기 성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당해 마을과 그 인근 마을의 주민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성과, 문제점, 장·단점,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표본은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 4개 마을은 공히 근래에 개통된 지리산둘레길이 통과하는 구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이었으나, 교육·문화·복지 등 마을만들기의 개념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생태적 고려가

미흡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는 면담조사결과 대상자의 응답 내용 중 과반수이상 응답한 내용 및 지적사항 그리고 장·단점을 요약한 내용으로, 마을별 성과 및 개선점 등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상사·오미마을의 경우 인구유입효과가 있었으나 나머지 2개 마을(권역)은 미미하였다. 인구가 증가한 마을 중에서도 상사마을과 같이 기존 거주주민과 신규 입주자간의 융화를 실천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오미마을은 그렇지 않았다. 인구가 증가한 마을은 공히 행복마을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직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여 동안 지가가 2배 가량 상승하였으나, 효(孝)·장수(長壽)(상사마을), 부농의 고택(오미마을) 등 마을의 상징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참새미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병행하였으나 나머지 3개의 마을은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마을만들기였다. 참새미골은 면소재지까지 포함하는 거점 마을만들기를 시도하였으며, 소득창출을 지향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옥펜션과 수영장의 유희기 활용이 미흡하였다.

Table 3 구례군 마을만들기 사례마을(권역)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빈도 : %)

마을	면담대상자									
	거주 구분별				성별		직업별		연령대별	
	기존 주민	입주 주민	인근 주민	계	남	여	농업	비농업	50대 이하	60대 이상
상사마을	8(10.7)	9(12.0)	3(4.0)	20(26.7)	16(21.3)	4(5.3)	13(17.3)	7(9.3)	8(10.7)	12(16.0)
오미마을	7(9.3)	6(8.0)	2(2.7)	15(20.0)	13(17.3)	2(2.7)	11(14.7)	4(5.3)	5(6.7)	10(13.3)
참새미골	23(30.6)	0(0.0)	4(5.3)	27(36.0)	24(32.0)	3(4.0)	25(33.3)	2(2.7)	6(8.0)	21(28.0)
예술인마을	9(12.0)	1(1.3)	3(4.0)	13(7.3)	11(14.7)	2(2.7)	11(14.7)	2(2.7)	3(4.0)	10(13.3)
계	47(62.7)	16(21.3)	12(16.0)	75(100)	64(85.3)	11(14.7)	60(80.0)	15(20.0)	22(29.3)	53(70.7)

출처 : 연구자 조사

Table 4 구례군 마을만들기 추진과정과 성과의 장·단점 비교

마을	성과 및 장점	지적사항 및 단점
상사마을	인구유입,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자 융화	지가 상승, 마을단위 소득창출 미흡, 하드웨어 치중
오미마을	인구유입, 펀드조성 등 소득창출 지향	지가 상승, 신축 한옥구조의 획일화, 하드웨어 치중
참새미골	광역거점개발, 소득창출, 소프트웨어 병행	한옥펜션 및 수영장의 유희기 공실화
예술인마을	서구식 건축, 예술창작실 및 전시실 포함	별장화, 예술인과 지역주민 간의 유대 미흡
공통점	지역자원 활용	교육·문화·복지 등 소프트웨어 미흡, 생태적 고려 미흡

출처 : 연구자 조사

IV.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방향

1. 교육·문화·복지 지향

구례군의 4개의 마을만들기 성과를 조사한 결과,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문제점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과 무관하였다. 즉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주민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Simpson et al(2003)이 제기한 농촌지역개발의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자원의 활용의 측면에서는 사례조사 대상마을들이 대부분 고려하였지만, 상사마을과 오미마을의 경우 한옥문화를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즉 상사마을의 경우 효(孝), 장수(長壽) 등 문화창출과 계승을 특화하지 않았으며, 오미마을은 획일적인 한옥건축으로 운조루, 곡전재 등 부농의 고택과 주변의 일반 농가의 기존 한옥의 상징성을 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주민과 신규유입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문화, 복지 등 마을만들기가 추구해야 필수 요소들이 결여된 것이다. 다만 상사마을의 경우 마을리더의 역할로 신규 유입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마을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행사를 가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의 본보기가 된다. 예술인마을의 경우 신규조성된 단지에 입주한 예술인들은 기존의 마을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어렵다. 예술인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잠시 머물면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공고히 형성되지 않으면 이른바 ‘마을 따로, 사람 따로’의 형태로 공동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점에서 지리산 참새미골의 여름철 수영장과 한옥펜션 운영을 마을주민들이 분담함으로써 주민단합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하드웨어 위주로 마을만들기를 완료한 마을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마을만들기를 시도하는 마을은 지역공동체형성을 마을만들기계획서에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마을은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마을만들기의 본연인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2. 거점개발

사례연구에서 지리산참새미골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거점마을인 방광마을과 인근 마을 외에도 면소재지까지 사업대상지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추용욱(2010)

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부합하며, 성주인(2012)이 제안한 읍·면 활성화를 도모한 마을에 속한다. 농촌의 인구가 아직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과소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마을의 거점이 되는 읍·면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참새미골은 면사무소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게이 트볼장을 건립하여 소재지 주민은 물론 인근마을의 주민들의 휴양과 소통 그리고 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이다. 흩어져 있는 마을주민들의 소통의 장(場)은 과거에는 주로 5일장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면 단위의 5일장이 사라졌으며, 군청 또는 규모가 큰 읍·면 소재지가 주민소통의 장이 된지 이미 오래다. 또한 군청 소재지에는 문화·교육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산촌의 초등학교도 대부분 읍·면소재지에 남아있음을 감안한다면, 거점개발을 통한 마을권역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마을단위 등 소규모의 마을만들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마을만들기는 가급적 읍·면 소재지 또는 거점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지금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는 예상 이용 빈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국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소득창출

근래에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마을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마을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체의 자립과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려는 목적보다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른바 마을살리기이다. ‘살리다’는 사라져가거나 없어진 마을을 되찾거나 복원한다는 의미이다. 즉 마을에 사람이 잘 살게 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마을살리기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가 농촌마을의 관광지화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 토목, 시설, 조경 등 하드웨어 구축을 통하여 체험장화함으로써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하였을지언정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미흡했기 때

문이다. 오미마을의 토산농산물을 이용한 펀드조성, 참새미골의 수영장 및 한옥펜션 운영 등은 마을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교육, 문화, 복지, 생태 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동체 복원과도 연계된다. 그것은 마을만들기와는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마을살리기이다.

마을의 소득창출은 비단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내재적 효과 외에도 마을과 마을 주변의 하천, 산, 자연경관 등 자연생태 살리기를 포함한다. 소득이 높아진 마을이어야 자연생태살리기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의 자연환경은 그동안의 개발 또는 방치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산어촌에 정주하는 마을주민들이 생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 가는 과정은 생태마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V. 요약 및 결론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각종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으로 2000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방향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 외에 구례군의 4개의 사례마을과 인근마을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농촌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을 시행한 상사마을, 오미마을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지리산참새미골, 구례군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행한 예술인마을이다.

조사결과, 4개 마을 공히 근래에 개통된 지리산둘레길이 통과하는 구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생태적 고려는 미흡하였다. 또한 참새미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병행하였으나 나머지 3개의 마을은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마을만들기였다.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상사마을과 오미마을에만 효과가 있었으며 지리산참새미골과 예술인마을의 경우 인구유입효과가 미미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거나 문화, 교육, 복지 등 마을만들기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하드웨어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마을소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참새미골은 먼 소재지를 포함하는 거점개발로 활성화되었다.

이에 향후의 농촌마을만들기의 방향으로 교육·문화·복지를 지향하는 마을만들기, 거점개발, 소득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에 부합하며, 사례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과 성과 및 장·단점 중 본받아야 할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다.

마을만들기에서 교육·문화·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복원상태가 미흡하며 하드웨어사업에 치중한 결과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과소화 마을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개발함으로써 권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점개발이 필요하며,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창출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들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뿐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부합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책이기도 하다.

다만, 이론적 배경으로 마을만들기의 개념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구례군의 4개 마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농촌지역마을만들기의 방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이는 이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전체 마을 또는 여러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방향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15).

참고문헌

1. 광의면지편찬위원회, 2011, 광의면지.
2. 구례군, 2012, 제51회 구례군 통계연보(<http://www.gurye.go.kr/>).
3. 구자인 등, 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4. 김선직, 2009,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문지환, 2012, 주민참여형 농촌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서정호, 2006,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6(2), 89-116.
7. 서정호, 2008, 지리산권 농촌관광마을의 마을회관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8(2), 121-144.

8. 서정호, 2010, 생태마을의 사상적 기초와 실천과제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7(1), 137-155.
9. 서정호, 2011, 지리산권의 생태마을 실천과정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2), 133-156.
10. 성주인, 2012,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소은주, 2011, 마을만들기에서 지역자원 활용 특성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우혜미 등, 201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태마을 계획요소 개발, 농촌계획, 18(2), 1-11.
13.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 농촌사회, 19(1), 7-47.
14. 정기석, 2012, 오래된 미래마을 668호 (<http://cafe.daum.net/Econet>).
15. 정기환, 2002,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방향, 농정연구 2, 113-132.
16. 조영재 등, 2011, 충청남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제, 열린 충남, 제55호, 충남발전연구원, 13-25.
17. 지리산닷컴, 2012(<http://www.jirisan.com/fund>).
18. 최봉익, 2012, 민주와 자치가 있는 광주마을공동체 실천 메시지, 포커스 광주, 2012-03. 1-59.
19. 최수명·송태갑, 2010, 전남농어촌지역 정주환경 개선방안, 전남비전 21, 63, 전남발전연구원, 70-106.
20. 추용욱, 2010, 강원도 읍·면 단위 마을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 디자인의 기본방향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강원논총 제1호, 113-138.
21. 日本建築學會, 2004, まちづくりラザインのプロヤス, 日本 丸善出版社.
22. 川上光彦, 1994, まちづくりの戦略, 日本 山海堂.
23. James B. Hyman, 2002, Exploring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to create a framework for community building, Applied development science, 6(4), 196-202.
24. Simpson, Lyn, Leanne Wood and Leonie Daws, 2003, Community capacity building: Starting with people not project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8(4), 277-286.

접 수 일: (2013년 2월 4일)

수 정 일: (1차: 2013년 2월 13일, 2차: 3월 3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3일)

■ 3인 익명 심사필